

“20대 청년 발언 논란 사죄” 고개 숙인 민주

홍영표 원내대표 공식 사과... 불평등 타개 노력 강조 홍익표 “반공교육 탓 통일 부정적... 발언 모르고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설총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20대 청년' 발언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홍 대변인은 이 같은 사과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발언 논란에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원내를 책임진 홍 원내대표가 대표 격으로 유감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 민주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가파르나

신동치 않은 가운데 터져 나온 악재로서 사태를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설 최고위원과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으나 20대 청년 발언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했다고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이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20대 민심을 다독이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이해찬 대표는 “3·1 운동을 이끈 자유·민주·청년 정신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에서 뛰쳐나오게 한 위대한 힘은 청년 정신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구조화한 불평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청년들이 짓눌려 있다”며 “청춘이 절망이나 상실의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과 정부가 직면한 현실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그들(20대)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비해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경제적·사회적 지위 상승의 사다리를 타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며 “이제라도 정치는 그들에게 실력과 열정만 있으면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들의 무한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총 의원님 발언에 대해 사과하신 것 같다”며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가 문제 삼은 것은 그런 내용을 강요했던 일부 보수당”이라며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이 낮다고 한 것이 아니고,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교육은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도 있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렸다. 9시 뉴스 토크쇼만 봐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번주내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

여야 4당 한국당 압박... 패스트트랙 방안도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을 꾀하기로 25일 뜻을 모았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여야 4당의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패스트트랙)에 부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원내대표들은 우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당 간 사를 독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들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어이가 없다”며 “여당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정수 확대를 야당에 제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51%로 회복

리얼미터... 한국당 1.6%P 오른 26.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51.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4.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월 첫째 주에 50.4%를 기록해 11주 만에 50%대로 올라섰다가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번엔 다시 2주 만에 50% 선을 넘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포인트 오른 40.4%로 1위를 지켰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오른 26.8%로 한 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회복세는 2·27 정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 TV토론, 합동연설회 등이 이어지면서 컨디션 효과가 다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7.1%(0.1%포인트 상승)로 보합세를 보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오른 6.6%, 3.2%를 기록했다.

김병준 “한국당 극단적 우경화 안 될 것”

비대위장 퇴임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병준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이 한 번씩 굽이 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다. 지나친 주장이 있어도, 또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어도 다 용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며 “비대위원장이 바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조금 더디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끊임 없이 할 것이고 관련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국민 3000명에게 유·무선전화로 걸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전대 당일인 27일 대의원 상대 현장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 절차가 종료된다.



만나긴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춘래불사춘’ 국회

문 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 정상화 논의 또 결렬

여야가 국회 정상화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히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물 건넨간 2월 임시국회 대신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1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된 것이 없다.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내가 제안했다”며 “한국당도 (손 의원 국조를)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재민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초부터 정부·여당을 향해 쏟아진 수많은 의혹에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여당이 하나도 수용한 것이 없으며 목소리를 높였고, 홍 원내대표도 정쟁용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질구질하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홍 원내대표가 ‘말조심하

라’고 언성을 높였고,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구질구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이후 오전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이를 앞으로 다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 성명에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기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회담, 북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적 정착 희망, 회담 결과 예의주시 및 이후 상황 초당적 대처 등 4개 항목이 담겼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지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